Sports p/21

페텔 코리아 그랑프리 3연패

metro

Sports p/21

장하나 V2 · 상금왕 보인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전액 배상

NEWS p/02

층간소음 1위 애들 뛰는 소리

NEWS p/03

태극전사 롤드컵 첫 우승

GAME p/08

공모주제

Gamification 게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아이디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요강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국적,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독 또는 3인 이내 공동출품 가능, 출품수 제한 없음
공모대상 게임을 즐기면서 학습, 인식제고, 재활 등 특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및 시나리오(교육, 공공정책, 재활분야)
플랫폼 온라인, PC, 콘솔, 모바일, SNG 등 플랫폼 제한 없음
장르 스포츠, 액션,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등 장르 제한 없음

접수방법

접수처 홈페이지 접수 **www.gameidea.co.kr**
제출자료 신청서 및 작품소개서(총 10페이지 이내)
접수기간 2013. 10. 21(월) 오후 3시 까지

문의처

기능성게임 아이디어 공모전 사무국 탁수현 책임(02-322-7005)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031-8016-8505)

수상혜택

경우 2014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지정공모과제로 선정
※ 대상 수상자가 제작지원에 응모할 경우 우대
수상작 게임 기획 컨설팅 및 멘토 지원
수상자 비즈매칭 및 유관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 대상 / 우수상 및 장려상 세익

시상금에 멘토지원, 비즈매칭까지
1석 3조 '기능성 게임' 도전해 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협찬 LG유플러스 EMRO

나를 없는 카라에 열도 '깜놀'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제2625호 www.metroseoul.co.kr

넥센·두산 내일 준PO 첫판

차 없는 거리 세발자전거 질주 6일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유아용 세발자전거에 올라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 삼거리에서 시청 앞까지 1.1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다. /뉴시스

구글도 못한 일 해낸 '똘똘 벤처'

모바일게임 분석기술 하나로 25억 대박 낸 스타트업 '파이브락스'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타트업 벤처가 모바일게임사들의 든든한 '러브콜'에 게임으로 업종을 바꿨다.

비결은 구글도 만들지 못한 데이터 분석 기술. 젊은 회사임에도 최근 일본 벤처캐피털로부터 25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비법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을 함께 손 가는 콤보를 엮고 있는 파이브락스(5Rocks) 이야기다.

파이브락스가 유명해진 데에는 미국 벤처업체들이 주도하던 시장에서 자리 잡은 첫 아시아 업체란 점도 작용했다.

이 회사의 이창수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메트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모바일게임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도 갖지 못한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회사를 소개했다.

파이브락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마디로 모바일게임 유저가 게임에서 떠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다.

게임 유저의 접속 횟수, 유료 서비스 결제 주기, 게임 중 몰입도가 떨어지는 지점 등 각양각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게임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면 게임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저가 게임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로 출발
게임업체 러브콜에 전격 전업
글로벌업계 표준 기술이 목표

전 세계 모바일게임의 시장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게임은 가파른 성장을 거듭 중이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파이브락스처럼 게임사를 뒷받침하는 백엔드(backend) 서비스도 '대어'를 낚을 수익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령 어떤 인기 게임이 대규모의 유저 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유저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기존 유저 수는 급격히 줄고 신규 유입자만 늘고 있다면 이는 게임이 사양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위험 신호"라고 설명했다.

게임의 생존에 변화를 줄 만한 각종 데이터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백엔드 업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것이다.

파이브락스는 애니팡, 사천성, 윈드러너 등 인기 게임으로 익숙한 선데이토즈, 게임빌, 링크투모로우,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사와 함께 쿠라부(KLAB), 포케라보(POKELABO), 마이넷(MyNet) 등 6개 일본 게임사를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기존에 레스토랑 예약 앱으로 활용됐던 이들의 유저 분석 기술을 모바일게임 쪽으로 끌어온 것도 게임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회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툴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한 자체 기술로 식당 이용자들의 동향 등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우연히 회사를 찾은 게임사들이 우리의 툴을 보더니 모바일게임에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했다"며 "실제 게임에 테스트해 보니 게임업계의 니즈가 생길 만큼 효과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브락스의 목표를 묻자 이 대표는 "많은 기업이 우리의 기술을 채택하면서 업계 표준 기술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15년 만에 '10월 태풍'

'다나스' 내일 부산 영향권…9일까지 전국 비

가을 태풍 '다나스(DANAS)'가 8일께 부산 인근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10월 태풍'은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상청은 24호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8~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6일 예보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다나스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3km로 빠르게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다나스는 8일 오후 부산 남남동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전망이며 9일 오전 독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소형 태풍으로 변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김유리기자

경부·경인고속도 통행료 본전 뽑은지 오랜데…

전국 4곳 2조6000억 초과 징수 유료도로법상 금지 규정 위배

경인선·경부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 누적 수입이 유료도로 건설 유지비를 넘어서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 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 통행료 수입이 17조4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4개 도로 건설 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원으로 통행료 초과 징수액은 2조6160억원이나 많았다.

고속도로별로 경부선이 건설 유지비 13조5937억원, 통행료 15조6743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이 2조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인선은 건설 유지비(7510억원)보다 통행료 수입이 3120억원, 남해 제2지선은 건설유지비(3017억원)보다 1440억원, 울산선은 건설 유지비(2761억원)보다 794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수익은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박 대통령 발리 도착 박근혜 대통령이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 라이 국제공항에 도착, 군 관계자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예산도 전액삭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지원에 이어 저소득층 영아 대상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 사업' 예산 162억원이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영아에게 12개월간 조제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는 공약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같은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에 들어있었다.

/김현준기자

남양유업 밀어내기 철퇴

법원 "초과공급으로 피해 입은 대리점주에게 전액 배상해야" 판결

수능 한 달 앞 간절한 기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한 달여 앞둔 6일 서울 성북구 우이동 도선사에서 학부모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6일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645만원어치의 물품을 주문했지만 남양유업으로부터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결국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했고 지난해 7월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9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박씨는 보증금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이 박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씨에게 있다고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장비 보증금은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부산영화제 특별호 불티 부산 시민들이 4일 오전 부산 센텀시티역 인근에서 배포하고 있는 메트로신문 부산국제영화제 특별호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3일 막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70개국에서 출품된 301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우정사업본부 고객만족 1위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13년도 한국산업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 행정서비스 부문 15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우체국은 이를 기념해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각 우체국에서 고객감사 주간을 운영한다.

이원복, 덕성여대에 1억 기탁

덕성여자대학교는 '먼나라 이웃나라' 저자 이원복 석좌교수가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 장학금 1억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덕성여대에 재학 중인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학생,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자를 지원한다.

여신들의 재림? 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회 대구 뷰티엑스포에서 국제미용경기 대회 판타지메이크업 부문 참가자들이 화려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층간소음 원인 1위' 초등 저학년·유치원생 대상 교재 발간

73%는 아이들 뛰는소리

층간소음 발생 원인 중 열에 일곱은 어린이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 진단 신청 건수 1829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원인으로 73.1%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망치질(3.7%), 가구 끌거나 찍는 소리(2.4%), 피아노 등 악기(2.1%), TV 등 가전제품(1.9%), 언쟁 등 대화(1.7%), 문 열고 닫기(1.4%), 화장실 샤워 소리 등 급배수(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감안,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교재 '층간소음 걱정 그만'을 발간했다.

예방 교육 교재는 '만화 및 삽화'로 구성해 초등학교 저학년 및 유치원생이 쉽게 층간소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 예방 교육이 가능한 '교과 시간'을 교재에 포함해 수업 연계 활용도를 높였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및 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교재는 ▲층간소음은 이럴 때 생겨요 ▲소음으로 이웃이 힘들어요 ▲이웃을 먼저 생각해요 ▲소음 줄이기 작할 수 있어요 등 4가지로 구성해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인식을 형성하도록 구성했다.

교재는 서울시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 배치될 계획이며 10월 중 중으로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전자 원문도 내려받을수 있다.

/송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돌리고 돌리고 9월 국내 한 주류 전 ... 주최한 바텐더 선발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화려한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주일 개근하면 1일 유급휴일

서울시교육청, 학생 알바 지침서 고교에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못 받거나 법이 보장한 휴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알바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라는 제목의 교육용 리플릿 자료를 제작해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누구든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식 시간을 포함한 근로 시간, 임금, 임금 지급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기간에도 시급을 깎아 지급할 수 없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유급 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만약 오후 10시 이후에도 일을 시키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를 가지고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인가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르바이트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신고 꿀센터'(1544-769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영

추리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 사망
1849년 10월 7일 미국의 시인이자 단편소설가이자 비평가이며 미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였던 에드거 앨런 포가 불과 40세에 노상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괴기소설과 시로 유명하며 미국에서 단편소설 개척자이자 고딕소설, 추리소설, 공포소설의 선구적 전개였으나 실어생전 궁핍, 음주, 도박, 광기, 마약, 우울증 등으로 매우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의 사망 원인은 최후의 미스터리이며 정확한 묘지의 위치조차도 논란거리다.

신종마약 탓 마약사범 다시 증가세

2009년 이후 줄어들던 마약류 사범 숫자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검찰청 강력부가 펴낸 '201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9255명으로 전년(9174명)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2009년 1만1875명을 정점으로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으로 줄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82.5%인 7631명이었고, 대마사범 11.3%(1042명), 양귀비 등 마약사범 6.2%(582명)로 집계됐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359명(31개국)으로 전년 295명(27개국)보다 38.6% 증가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총 48.2kg으로 전년(110.6kg)에 비하면 56.4% 감소했지만 정제형 마약류인 MDMA는 774g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했고, 신종 유사 마약인 JWH-018은 276% 증가한 4.45kg이 압수됐다. 프로포폴은 지난해 2만202앰플(50㎖)이 압수돼 전년(2004앰플)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문기자 [illegible]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제2회 대한민국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능성 게임 아이디어'를 주제로 교육, 공공, 재활 3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게임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21일 오후 3시까지 공모전 사이트(www.gameidea.co.kr)에 접수하면 된다.

두 차례 평가를 거쳐 10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김유리기자

컬러 폭탄 맞으며 달려요 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컬러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각양각색의 '컬러 폭탄'을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신화 뉴시스

미 기상청 날씨 예보 '월급 주세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로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가 마비된 가운데 미 기상청 알래스카 앵커리지 사무소가 '암호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사무소가 이날 발표한 기상예보문의 앞글자를 따서 읽으면 'P-L-E-A-S-E P-A-Y U-S(플리즈 페이 어스, 우리에게 월급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기상청 직원들이 비밀 암호를 통해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

앵커리지 기상청이 4일 발표한 기상예보문

현재 미국에서는 약 80만 명의 공무원이 셧다운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기상청 등 주요 부서 직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나무 브래지어가 53만원

metro Russia

러시아 목공예 조각가 이색의상 고가에 팔려

деньги продают липу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의 목공예 조각가 세르게이 브이코프(56)가 나무로 만든 이색 의상 컬렉션을 발표해 화제다.

브이코프는 "가난한 어린 시절 주변에서 흔히 보던 것이 나무"였다며 "나무는 나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젠틀맨의 우디지'에서 벌거벗은 주인공들이 옷 대신 나무 양조통을 뒤집어쓴 모습을 보고 의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브이코프는 목공예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실제 사물을 이용해 스케치하고 디자인했다. 그는 "머릿속으로만 사물을 생각하고 그리는 것은 불가능해 실제 사물이 필요했다"면서 "아내의 속옷과 물건을 몰래 가져다 보면서 목공예 제품을 만들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브이코프의 나무 의상은 꽤 비싼 편이다. 집의 편안함과 아늑함을 상징하는 목욕 가운은 6만 루블(약 200만원)에 육박하며 넥타이 7000루블(약 23만원), 지갑 1만 루블(약 33만원), 장갑 6000~7000루블(약 20만원), 여성 속옷 1만6000루블(약 53만원) 등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개성 만점 작품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적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양말 한 켤레를 50루블(약 1만5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나무 양말은 1만3000루블(약 44만원)이나 한다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무 양말은 남성의 고독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브이코프는 자신의 작품 중 넥타이 등은 실제로 착용이 가능하지만 소재의 특성상 속옷이나 신발 등은 착용감이 좋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로 소장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루슬라나 카로코바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서울특별시

행복을 드립니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경제적 혜택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우리카드,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안내

- ♥ 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 카드종류 신용, 체크, 신분확인용
- ♥ 발급신청
  - 신용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우리은행 전 영업점
  - 체크카드 우리은행 전 영업점
  - ※ 신분확인용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 ♥ 주요혜택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다둥이 행복카드 특별혜택

다둥이 행복 지원금

- ♥ 지급대상 다둥이 행복카드(신용·체크) 10만원이상 이용자 중 추첨하여 지급
- ♥ 이용기간 '13. 10월 ~ 11월(2개월간)
- ♥ 지급금액 530가족
  - 3자녀 이상 중 추첨 100가족 가족당 50만원
  - 2자녀 이상 중 추첨 430가족 가족당 30만원
- ※ 다둥이 사랑 우수협력업체 지원금 병시
  - 협력업체 중 실적이 우수한 중소업체 10개소 선정하여 업체당 2백만원 지원
- ♥ 추첨결과 발표 '13. 12월중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문자 발송
- ※ 단, 지급액 중 제세공과금 28.205% 차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i.seoul.go.kr)참조 및 120다산콜센터에 문의

120 다산콜센터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우리은행 우리카드

삼성전자 '장사의 신'

IM부문 질주 속 올해 영업이익률 11년만에 17%대 전망

삼성전자가 11년 만에 장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영업이익 등에서 사실상 매년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실속 챙기기에도 성공한 셈이다.

갤럭시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휴대전화 사업에서 19%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덕에 올해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17%대를 넘보고 있다. 이는 2002년 17.88%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9월 삼성전자가 올린 매출은 169조3300억원, 영업이익은 28조41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6.77%를 기록하고 있다.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6.60%, 16.58%였다가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던 3분기에 오히려 17.11%로 껑충 뛰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IM(IT·모바일)부문이 군계일학이다. 3분기 사업 실적은 부문별로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까지 보면 IM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8.70%에 이른다.

이어 디스플레이 사업이 12.36%, 반도체 사업이 8.61%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비자 가전 사업은 2.74%로 저조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는 9월 출시한 갤럭시 노트3의 판매가 반영되는 데다 연말 특수까지 더해져 3분기보다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17%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2000년 21.68%까지 치솟았으니 이듬해 7.08%로 위축된 데 이어 2002년에 17.88%를 기록한 게 최근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03년 16.50%, 2004년 14.34%, 2005년 9.39% 등으로 낮아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4.97%까지 떨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올해 '성장'과 '내실'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서해준기자 szn@metroseoul.co.kr

소믈리에 대신 '와인 키오스크' 터치 6일 홈플러스 와인 매장에서 모델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와인을 고르고 있다. 홈플러스는 월드컵점, 강동점, 유성점 등 리프레시 점포에 셀프쇼퍼를 위해 가격대, 포도 품종, 음식과의 궁합 등 다양한 테마로 와인 검색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분양단신

덕수궁 롯데캐슬 '팜 퍼니처' 눈길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들어설 '덕수궁 롯데캐슬'의 신규분양을 이달초 시작했다. 아파트 296세대, 오피스텔 138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단지다.

특히 116㎡ 아파트 거실에 선택 옵션으로 처음 선보이는 '빌트인 팜 퍼니처'(사진)가 눈길을 끈다. 식생보드 전문업체인 디아트(D-art)와 공동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빌트인 팜 퍼니처는 채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조명과 수조, 펌프 등을 내장한 수납 가구다. 문의 02)790-9669

세종시·아산밸리 'EG the1' 분양

이지건설은 지난 5일 세종시와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아파트 'EG the1'의 신규 분양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 1-1 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시 EG the1 2차는 72㎡, 84㎡, 107㎡ 등의 평형대로 구성된 총 900세대 대단지다.

아산테크노밸리의 중심부에 들어설 아산테크노밸리 EG the1은 이달 중 분양되는 1차 1013세대와 2차(11월 분양 예정) 1359세대 등 59㎡, 79㎡ 등 평형으로 구성된 총 2372세대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문의 세종시 2차(1661-0077), 아산테크노밸리 1차(1661-6700) /김현정기자

캐나다 겨울단기 스쿨링' 드림아이에듀 학생 모집

드림아이에듀가 캐나다 겨울 단기 스쿨링 지원 학생(초등4~고교2학년)을 모집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립교육청 또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며 최고의 문화 체험과 영어 능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문의 02)3444-0111 www.dreamedu.com

SKT T1 '롤드컵 대관식' 1만여 관중 환호

결승서 中로열클럽 황주 3-0 완파 '한국 첫 우승'
소환사컵·11억 상금 품고 세계 게임계 새전설로

5일(한국시간) 미국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 2013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SKT T1 선수들이 소환사 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국명기자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 장관

사이버 태극전사들이 한-중 맞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세계 최강 자리에 올랐다. 경기를 지배하는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를 가득 메운 1만1000여 명의 유료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보냈다.

5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프로농구팀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 2013 결승전에서 한국의 SKT T1은 중국의 로열클럽 황주를 3-0으로 완파하고 소환사 컵과 함께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거머쥐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롤드컵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SKT T1은 '페이커' 이상혁을 필두로 퍼글렛 재관진 '임팩트' 정언영 '벵기' 배성웅 '푸만두' 이정현 등이 완벽한 조화를 뽐내며 중국을 시종일관 압도해나갔다.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던 1세트에서는 중반 이후 이상혁의 활약에 힘입어 신승을 거뒀다. 2세트에서는 초반 중국의 거센 공격에 휘말려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재관진의 플레이가 살아나며 역전승을 거뒀다. 3세트에서 전투 의지를 상실한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20여 분 만에 경기를 끝내 '전승'을 완성했다.

경기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SKT T1 선수들은 "이곳에 와서도 하루 14시간씩 연습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다"며 "생애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다"고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잠시 휴식 후 WCG와 윈터 시즌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성숙한 답변으로 세계 최강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SKT T1의 우승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월드컵 우승 자랑스럽다" "게임 최강 대한민국"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뻐했다. '월드컵 결승' '챔피언십 쓰레쉬' '월드컵 코드' 등 롤드컵 관련 검색어도 포털사이트 지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로스앤젤레스(미국)=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앞으로 코카콜라도 대회 후원 예정"

라이엇 게임즈 벡 대표

"이번 세계적인 기업인 코카콜라가 대회 후원사로 참여합니다. 이는 코카콜라 한국지사가 본사를 비롯한 다른 지사를 설득한 덕분입니다."

라이엇게임즈의 브랜 벡(사진) 대표가 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을 앞두고 4일(현지시간) 미국 산타모니카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깜짝 발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벡 대표는 "현재 코카콜라가 롤 게임 팀이나 월드챔피언십 등을 후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벡 대표는 한국에 대한 애정도 한껏 드러냈다. e스포츠를 선도해온 온게임넷 등 한국 기업을 통해 e스포츠 운영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벡 대표는 "미국 e스포츠는 한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북미와 유럽에서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e스포츠가 하나의 스포츠로서 일반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승전이 끝난 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음식 순두부를 먹으며 뒤풀이를 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국명기자

연말 크로스파이어 서비스

스마일게이트는 자체 개발한 1인칭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를 연말께 직접 진행한다. 이에 앞서 최근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 크로스파이어는 80여 개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동시 접속자 수 420만 명의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북미 및 러시아에서 FPS 게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크로스파이어는 공식 페이스북을 오픈해 유저와 소통할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zen@

오토캠핑장 '물건너온 자존심'

토요타 시에나·혼다 파일럿
안락한 승차감·외관 매력적

혼다 파일럿

오토캠핑 열기가 가을을 맞이서도 식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풍 나들이를 즐기려는 니즈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가을에 휴가를 예정했던 직장인들이 더해진 까닭이다. 이에 오토캠핑에 적합하던 미니밴과 대형 SUV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들 모델을 각각 대표하는 '카니발' '베라크루즈'와 함께 토요타의 '시에나', 혼다의 '파일럿'과 같은 수입차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차량은 최소 두 달 이상 대기를 해야 손에 넣을 수 있다.

◆남성 7명 함께 타도 넉넉한 밴 시에나

시에나는 카니발과 덩치가 비슷하다. 다만 9~11인승인 카니발과 달리 7명까지 앉을 수 있게 설계됐다. 즉 9인 이상인 고속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약점은 곧 강점이 될 수 있다. 2열 2석, 3열 3석으로 배치된 실내는 성인 남성이 타도 넉넉하다. 인기 있는 캠핑장은 출발 전부터 차가 밀리는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시에나의 경우 장거리 장시간 여행을 해도 피곤함이 덜하다.

3.5ℓ V6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66마력, 최대 토크 33.9kg·m의 괴력을 내뿜어 힘이 달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연비도 큰 덩치와 배기량을 감안하면 많이 나쁘지 않은 8.5km/ℓ다. 4970만원.

◆스포티한 디자인 시선 끄는 SUV 파일럿

혼다 '파일럿'은 7인승이면서도 미니밴이 아닌 SUV란 차다.

밴은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지만 버스처럼 부득이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스포티한 디자인이나 역동적인 주행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파일럿은 밴과 SUV의 장점을 합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열 2인용 시트는 평소에는 접혀있어 트렁크 공간으로 쓰면 되지만 실제 이곳에 성인 남성이 앉으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 불편함의 크기만큼 SUV로서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3.5ℓ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57마력, 최대 토크 35.4kg·m의 성능을 내고 복합 연비는 8.2km/ℓ다. 제원상으로는 시에나와 큰 차이가 없다. 4890만원.

다만 두 모델은 모두 가솔린 엔진을 채택,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정숙하고 안락한 주행과 승차감을 선호한다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승훈기자 zen@metroseoul.co.kr

현대차 '글로벌 프렌드십' 외국인 학생 120명 초청

현대차는 2015년까지 총 1만 여명의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를 양성한다는 계획 아래 4~5일 이틀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120여 명을 초청해 '현대차 글로벌 프렌드십 투어'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초청된 유학생들은 현대차 아산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국내 대표적 산업 현장을 견학하고 공주 디자인 비엔날레, 세계김치문화축제 등에 참여해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2009년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미래에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상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해외에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한류 전도'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까지 약 69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했으며, 2015년까지 총 1만 명 이상의 '글로벌 한국 홍보대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metroopinion

'요물'이 돼버린 스마트폰

뉴스룸에서
박성훈 <경제산업부 차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8%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하루가 무섭게 늘어나는 만큼 올해가 지나면 80%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즉 10명 가운데 8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 지금은 시골의 할아버지들도 노인정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편입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소음 공해다.

물론 예전 셀룰러폰 시절에도 소음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LTE 시대에 이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게 와 닿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이다. 중년 남성이 이어폰 없이 단말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프로야구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음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릴 때까지 안방에서 TV를 보듯 스마트폰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켰다.

곧이어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일일드라마를 볼륨 그대로 노출시키며 혼잣말을 곁들인 채 감상했다.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그 드라마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들의 대사를 들어야 했다.

문제의 여성도 하차하자 잠시 동안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대중교통에서의 고독(?)은 사치인 것일까.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승차했다.

5년 정도 거래처 사람인 듯한 자와 시끄럽게 통화를 하더니 통화가 끊기기 무섭게 여자친구와 무선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아닌가. 애인과의 소통이 끝나자 어머니인 듯한 분과 전화를 하며 "두 정거장 남았으니 라면을 끓여 달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엄마를 가사도우미로 전락시켰다.

> 드라마에 야구 중계까지 대중교통을 들었다 놨다 ”

다시 되돌아가 보자. 동영상을 주야장천 큰 음량으로 즐겼던 두 사람은 끊김 없는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만 생각했지 타인이 겪을 고통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놓아두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남성의 경우 음성통화 무제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LTE 서비스는 빠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빠르면서도 광범위하다.

기초연금만큼 중요한 생활체육

정론탁설
유병팔 <변호사>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실 노인 복지의 핵심은 '생계' 다음으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비는 지난해 47조4000억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16조원이 소요됐다. 1인당 311만원꼴이다.

이와 같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절감 대책은 매우 빈약하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1년간 받는다고 해도 240만원에 그쳐 연간 의료비 부담도 커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노인 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에 비해 아주 높다. 최하위권으로 보잘것없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무의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대다수 어르신들이 가장 큰 고민은 의료비 부담이다. 더욱이 노인들의 건강이 날로 좋아져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고통 없는 노후가 보장될 때 행복한 노후가 된다.

따라서 노인 복지의 핵심은 건강관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물론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둘레길을 만들고 공원마다 체육시설을 늘리고는 있다. 이에 비해 행정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새해 국민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1039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지난해 714억원에 비해 많이 늘어나기는 했다. 그렇지만 노인 건강관리 면에서는 미미하다. 이제 고령화사회를 맞아 '맞춤형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은 600만 명이 넘지만 생활체육 전담지도자는 830명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국민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 초에 '스포츠 제2의 길'이라고 하는 '골든 플랜'을 만들어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즐기는 문화로 키워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복지수를 높이며 노인 건강을 돕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앞쪽이 경쟁적으로 레저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방편인 동시에 복지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지름길이 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노인 복지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생활체육이다.

포토프리즘 — 코스모스 닮은 여심

(사)서울 이촌한강공원 인근 코스모스 꽃밭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얼굴에서 기분 좋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손진영기자 son@

수장 잃은 '대한민국 복지'

기자수첩
황재용 <생활경제부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을 이유로 지난달 말 사퇴함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이영찬 차관 대행 체제로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고 있다.

진 전 장관이 소신에 어긋나 사표를 낸 것이지만 정부 정책은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는 모양새가 무책임하다.

또 복지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하거나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퇴만으로 사건을 일단락했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장을 잃은 복지부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문제로 정국이 뜨거운 지금 기초연금 관련 언론 보도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매일 쏟아내고 있다. 관련된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지만 눈앞의 작은 파도를 피하려는 이런 모습이 더욱 안쓰럽기만 하다.

게다가 산재한 복지부의 각가지 현안과 지역자활센터를 사찰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 고암의 국정감사라는 큰 파도들이 복지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복지부의 표류를 바로잡아줄 복지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 분야를 잘 이해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논란을 잠재우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이번 논란으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도 다방면을 고려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아프다

인문학 산책
김만웅 <성공회대 교수>

갈대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을 빠져나오면 펜테론을 끼고 도는 허드슨강 상류다. 가을이 스친 우경 뉴저지 동부 9W 도로를 따라 이곳으로 차를 몰아 하구 쪽으로 눈을 돌려본다. 쭉 이어진 절벽이 대서양을 향해 사열받는 병정들처럼 촘촘히 줄지어 서 있다. 어둠이 내리면 마천루로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야경이 하늘을 꽉 채운다. 절경이다.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 하나만 건너면 된다.

그 허드슨강변의 갈대숲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성한 갈대와 그보다 더 많은 잡물은 우리에겐 여전히 금단의 영토에 속해 있다.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 흘러 내리고, 물새들은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 재일 조선인들이 겪는 애환을 그린 일본 영화 '박치기'(2004년)에 등장하는 노래 '임진강'의 가사 일부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나라는 곧바로 분단이 되고 300만 명 이상이 죽는 처참한 전쟁을 겪었으며 지금까지 60년 동안 역사의 숙제를 풀지 못한 채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 햇볕정책에서 시작해 6·15를 거쳐 10·4 선언으로 이어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까닭을 필설로 다 하자면 어디 책 한 권 정도이겠는가?

하지만 책 한 권의 메시지가 시대를 뒤흔들 때도 있는 법이다.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로, 또 교육부총리와 대한 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한완상 선생이 '한반도는 아프다'를 펴냈다. 세계적인 냉전이 깨져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기운이 솟아오르던 1990년대 초, 그는 봉쇄돼 있던 남북 관계를 돌파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건 희망과 좌절의 교차였고 분투와 아쉬움이 엇갈린 세월이었다. 이제 팔순을 앞둔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반도의 참자가 아프다.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통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 아프다." 공직자의 비망록 출간이 드문 우리의 현실에서 그의 책은 과거에 대한 치밀한 기록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희망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가는 길이 그의 지난 20년 역사의 지기 고백적 기록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마음들이 남과 북 사이에 오간다면 우리 겨레의 내일은 날로 여물어지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세워야 할 다리다.

저소득층 관절염 줄기세포 무료치료

연세사랑병원–엄홍길 휴먼재단 '카티스템' 연골재생 후원 캠페인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관절이다. 그중 무릎은 걷거나 뛸 때, 혹은 앉거나 설 때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 중 하나로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돼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법으로 최근 '줄기세포 치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노인 환자를 위한 본격적인 후원 활동에 나섰다.

◆통증 없이 운동량까지 회복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내 위치한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기 서로 맞닿음으로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노인들이 흔히 하는 '무릎이 아프다'는 말은 바로 무릎 관절의 노화가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다.

이런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본래 자신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무릎관절 운동량 회복뿐 아니라 통증 경감 효과도 기대다준다. 다만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영구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전에는 재수술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엄홍길 휴먼재단 대장과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반면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이다. 관절을 인공으로 바꿔버리는 인공관절 수술과 달리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재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직 어린 세포인 줄기세포를 연골 병변에 주입해 연골로 분화하게끔 만듦으로써 다시 재생시키는 원리다. 줄기세포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 '제대혈(탯줄 혈액)', '지방' 등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에는 연골이 이미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맞닿아 통증이 심한 상태"라며 "연골 손상을 조기에 진단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면 통증 완화는 물론 운동량도 전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어르신에 경제적 부담 없이 최신 의술 보급

줄기세포 치료의 경우 최신 의료기술인 만큼 수술비 부담이 적지 않아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료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환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 연세사랑병원과 제대혈 유래 동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카티스템 무료 후원 대상자는 무릎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후원을 주관하여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게 되고 파트너인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후원하게 된다.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는 "연세사랑병원과의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셔서 편하게 걸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공연장을 통해 신청

발기부전·전립선비대증 탓 멀어지는 부부

성생활 넘어 일상서 소원
노화현상 아닌 만성질환
초기치료하면 95% 개선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이 성생활 문제를 넘어 실제 부부 관계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최근 세계 8개국에서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을 함께 앓고 있는 40~65세 남성 및 그 배우자 151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1165명)가 '두 질환의 증상이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방해했다'고 답했다. 두 질환이 성관계로 부부가 함께 느끼는 삶의 즐거움이 줄고 원만한 성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어들 질환이 끼치는 주된 영향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원만치 않은 성생활'(남성 70%·여성 75%)과 '자신이 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남성 61%·여성 4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여성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점'(43%)을, 남성은 '수면장애'(33%)를 그 다음으로 많이 호소했다.

국내에서도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에게 흔한 빈동이 질환으로 국내 발기부전 환자 10명 중 8.5명이 전립선 질환을 동반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화 현상 아닌 관리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야

한국릴리가 발기부전을 앓는 남성 301명에게 설문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6.5%)가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1~3년'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치료를 받는 시기가 훨씬 늦는 것으로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33.6%)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조강수 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두 질환은 노화 현상이 아닌 고혈압·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처럼 초기에 적극적이고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며 "치료받으면 95% 이상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한 알씩 복용하면서 치료하는 저용량 발기부전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면 주저 없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해 6만명 마비증세 호소

최근 6년 건보 진료비 분석…뇌졸중 사고 등 원인

1년에 약 6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몸의 크고 작은 부위가 마비돼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진료 환자 중 뇌성마비를 제외한 '마비 진료 환자'의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이 2007년 4만9720명에서 2012년 6만1786명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마비는 신경계 질환이 원인이 돼 사지를 포함한 안면·복부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을 통틀어 말한다.

마비로 인한 총 진료비 역시 환자 증가에 따라 2007년 1236억원에서 2012년 3835억원으로 연평균 25.4% 늘었으며, 마비 진료 환자 중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은 비중은 2007년 57.0%에서 2012년 65.7%로 증가했다.

2012년 기준 연령대별 인구 1만 명당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마비 환자는 80대 이상은 인구 1만 명당 78.7명, 70대는 60.0명, 60대는 32.8명으로 고령자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김형선 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신체 마비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이고, 사고 등으로 머리·목의 척수가 손상된 경우에도 심각한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인대질환·건초염 '5분만에 치료' 되네

'스타들이 찾는' 강남초이스병원 진화된 비수술치료법 3년째 시행
DNA줄기세포주사·특수 인대주사 후 3차원 도수치료 등 재활 도와

평소 오른쪽 팔꿈치에 건초염을 앓고 있던 유명 여배우의 아버지 S(55)씨는 자주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발목 인대 손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인대 강직 주사 제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자주 재발해 수술 권유를 받았으나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특수 인대치료 주사를 맞았다.

담당 주치의인 조성태 강남 초이스 병원장은 "S씨는 진단상 우측 팔꿈치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각골 신경염, 우측 발목 외측 인대 만성 손상 및 인대 염좌가 있었다"며 "환자에게 기존 치료 상황을 듣고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부종 감소 및 염증 치료를 위한 특수 인대치료 주사 치료를 병행해 부여했고 염증이 심한 인대와 신경을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3년 전부터 강남 초이스 병원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특수 인대치료 주사는 기존의 인대 강직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 주사와 같이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찾는 척추관절 치료 병원으로 유명한 강남 초이스 병원은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와 특수 인대치료 주사 치료 후 완벽한 재활을 위해 도수운동 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질환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환자 맞춤형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도수치료사·운동치료사·물리치료사 4명을 환자에게 전담 배치하는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S씨 역시 체계화된 이런 시스템을 통해 주사 치료 후 주 2회씩 1개월간 빠른 회복에 중점을 둔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강남 초이스 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에 본원 외에 홍대입구역에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 등을 위한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 다리, 측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했으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 센터 연골과 인대 재생 및 재생센터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조성태 병원장은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비수술적 치료가 시대의 흐름"이라며 "명예와 양심을 걸고 진료를 하며 첨단 장비를 통해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핼러윈 런' 4km 스릴 질주

19일 웅진플레이도시 행사

도심형 종합 테마파크 웅진플레이도시가 부천시의 후원을 받아 오는 19일 웅진플레이도시 및 부천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핼러윈을 테마로 한 이색 러닝 페스티벌 '핼러윈 런 런'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콘셉트의 핼러윈 캐릭터로 변장해 총 4km의 스릴 넘치는 핼러윈 런 코스를 완주하게 된다.

코스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비가 득실대는 1단계 '좀비 지역'을 시작으로 난이도가 높은 '공동묘지', DJ와 함께하는 '파티 타임', '블랙이웃 터널 코스', '장애물 코스'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모두 완주하면 신나는 워터파티가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에서 펼쳐진다.

참가자 접수는 핼러윈 런런 공식 홈페이지(runruns.co.kr)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핼러윈 가면,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스파 이용권을 증정한다. 행사장 내에는 참가자가 직접 핼러윈 분장을 할 수 있는 셀프 분장 장소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의 02)597-7425 /황재용기자

'쁘띠엔젤 물류센터'서 여성의류 도매가 쇼핑

여성 의류 전문점 쁘띠엔젤 물류센터가 일급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동포천과시장에 위치한 쁘띠엔젤 물류센터는 도매를 기본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낱장으로 도매가에 판매하고 있다. 쁘띠엔젤 화곡점(02-2644-2993)과 부천점(070-4843-5531)에서도 도매가로 판매 중이다. 이와 함께 쁘띠엔젤은 의류매장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주에게 가맹비 없이 점포를 내주고 있다. 문의 02)2672-2594

강강술래서 외식하고 플라잉요가 공짜

13일까지 먹거리 할인
이달말까지 경품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을을 맞이 나들이에 나서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까지 이색 먹거리 할인 행사를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을 통해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600ml·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l·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10팩짜리 소용량 세트(350ml·10팩·20인분)는 4만4100원에 올인원(All in One) 쥬크 화장품(1만원)을 사은품으로 준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봉지째 데워 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정찬한우떡갈비(3세트·1080g·4만2000원)와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3세트·1080g·2만52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한돈양념구이(500g)와 돼지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가을나들이 세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30% 할인된 2만4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월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플라잉요가 등 '아메리카 핫요가'의 최신 트렌드 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1년 VIP회원권(1명)·6개월 회원권(5명)·1개월 회원권(20명)을 증정하며, 선정자 전원에겐 3회 무료 수업권을 준다. /박지원기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노년에 꼭 필요한 세가지 보장을 한번에!

실속있는 구성의 다양한 선택 계약

상해사망 | **시청각질환 수술비** | **치매 간병비**

담보명			보장금액	알아두셔야 할 사항	월 보험료			
기본계약	Active 보험금		1천만원 한도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깁스 및 노인성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연령	50~69세		
	지급범위	골절	30만원~5백만원		남자	11,630		
		화상	1백만원~3백만원		여자			
		깁스 및 노인성	180만원					
선택계약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령	50세	60세	70세
					남자	190	400	980
					여자	280	510	1,280
	치매간병비II (중증치매)		3천만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남자	630	3,380	15,980
					여자	1,750	8,020	40,080
	상해사망		1백만원	상해로 사망 시 지급	연령	50~69세		
					남자	880		
					여자			

(3년만기, 전기납, 재가입시 보험료 인상가능)

명품 부모님보험

☎1644-9896

중년에 걱정되는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보장!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 골절진단·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암 진단비 2천만원 보장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하여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최초 계약 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

월 보험료(1인당)

연령	기본계약 남자	기본계약 여자	연령	암 진단비 남자	암 진단비 여자	뇌졸중 진단비 남자	뇌졸중 진단비 여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남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여자
15~65세	13,230		30세	1,440	4,340	600	380	500	180
			40세	4,080	8,780	1,780	660	1,030	360
			50세	8,800	11,220	4,480	3,100	1,760	720

연기갈증 풀려고 연극 찾은 남자

'클로저' 주역으로 무대 복귀하는 배우 신성록

병역을 대신해 공익요원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하다 지난 8월 소집해제된 뮤지컬 배우 신성록(31)이 색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돌아왔다. 민간인(?) 복귀작으로 '클로저'(~12월 1일 대학로아트센터 1관)를 골라 연극 연기에 처음 도전 중인 그는 "연기 고민을 해소하고 싶어서 선택했다"며 열정을 불태웠다.

/박경란기자 rmki427@metroseoul.co.kr

#제대 후 여유로워져 – 매일 근육 단련기

이 작품은 네 남녀의 사랑과 집착, 욕망을 감각적으로 그린다. 동명의 영화에서 주드 로가 연기한 부고전문기자 댄 역을 맡았다. 2010년 뮤지컬 '몬테크리스토'를 마치고 훈련소에 입대했던 신성록은 "이전에 비해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며 소집해제 후 달라진 점을 설명했다.

"소집해제 다음날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공연 첫날만 긴장했을 뿐 이후부터는 제 느낌대로 연기하면서 재미있게 무대를 즐기고 있어요. 새로운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연기하다가 문득 울컥해서 눈물이 나기도 한답니다."

소집해제 반년 전인 3월 일찌감치 출연 제의를 받은 그는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만들었다. 학창시절 농구 선수로 활동하다 당한 허리디스크 부상으로 인해 이후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뮤지컬과 달리 춤과 노래가 없어 편하다고 했다. 그러나 몸이 편하고 싶어 연극을 선택한 건 아니다. "뮤지컬은 대부분 시대극이어서 과장된 연기가 내 몸에 배어있었다.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연기를 끌어낼 시간이 필요했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고 전문기자 댄 캐릭터 애정결핍 없는 듯

이 연극이 사랑에 대해 감각적으로 그린 수작이라는 점도 도전을 결심한 이유였다. 영화로도 가장 좋아했다는 그는 "어릴 적 처음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던 등장인물들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감정이 30대가 되고 보니 이해가 가더라"고 말했다.

30대 되니 등장인물 사랑 이해돼
실제 무뚝뚝한 한국남자 스타일
김주원과 열애? 말할단계 아냐

그렇다면 극중 두 여자 앨리스와 안나에게 상처를 준 댄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댄은 어릴 적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애정 결핍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난 무뚝뚝한, 전형적인 한국 남자일 뿐 나쁜 남자는 아니다"고 손을 내저었다.

이어 앨리스 역의 이윤지, 진세연과 호흡을 맞추는 소감에 대해 "이윤지는 감정을 잘 담아내는 베테랑이고, 진세연은 어린 스무 살에 연극에 도전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친 김에 공익근무 중 열애설이 불거졌던 발레리나 김주원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당시 소속사가 한결히 부인했던 것과 달리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좋은 소식이 생기면 밝히겠다"고 인정도 부인도 아닌 의미심장한 대답을 내놨다.

12월에는 다시 뮤지컬 배우로 돌아온다. 12월 6일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할 '카르멘'에서 돈 호세 역을 류정한과 번갈아 맡는다. 휴식 없이 일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일을 쉬면서 다시 열정이 생긴 것도 있지만, 돈 호세의 사랑과 열정에 끌렸다"고 로맨티시스트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사진/커넛드미 기울세보름 디자인/김혜림

star bag

"무명시절 욕실서 성폭행"

팝의 여왕 마돈나가 젊었을 적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55세인 마돈나는 미국 패션잡지 하퍼스 바자 11월호에서 "무명 시절인 스무 살 때 뉴욕에서 빌딩 옥상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도둑에게 세 번이나 집이 털리는 등 우주처럼 느껴진 뉴욕에서 성공을 거두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젠 고향처럼 느껴진다"고 술회했다.

결혼식 후 경주로 신혼여행

개그우먼 김미려(오른쪽)와 연기자 정성윤이 백년가약을 맺었다.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예식장에서 주례 없이 가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촉을 밝힌 이들은 경북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전날에는 개그맨 노우진·이정수와 방송인 안선영이 결혼했다. 노우진과 이정수는 식에 앞서 나란히 '속도위반' 사실을 공개했다.

마카오 영화제 참석차 출국

연기자 장서희가 중국에서 열리는 제10회 마카오 국제 금련상 영화제 참석을 위해 6일 현지로 출국했다.

소속사는 "이번 영화제는 8일까지 열리는데 부산국제영화제와 일정이 겹쳐 아쉽게도 국내 팬들을 만나지 못하고 현지로 떠나게 됐다"고 전했다.

장서희는 국내 드라마 '인어아가씨' 와 여러 현지 대작 드라마로 중화권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트위터 탈퇴… 기성용 때문?

연기자 한혜진이 트위터와 SNS에 활발했던 남편 기성용을 따라 자신도 지난달 트위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우리도 뒤늦게 알았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 원래도 트위터를 즐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의 이 같은 얘기와 달리 한혜진은 기성용과의 교제 사실과 결혼 소식 등 중요한 개인사가 생길 때마다 SNS를 통해 알리곤 해 이번 SNS 탈퇴가 남편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카라의 강지영 니콜 박규리 한승연 구하라(왼쪽부터)

니콜 빠지는 카라 日 언론도 놀랐다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내년 3인조 또는 4인조 활동

카라의 5인조 활동 마감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일본 도쿄스포츠의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DSP미디어는 니콜의 탈퇴 등 팀 변화를 공식 발표했고, 일본 언론들은 9일 이 소식을 일제히 톱 뉴스로 전했다.

닛칸스포츠는 '카라 분열, 니콜 탈퇴 발표, 해체는 부정'이란 제목과 함께 향후 활동 계획과 지금까지 카라의 주요 활동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5명이 선보이는 라이브는 11월 24일 고베 공연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신곡 발매 예정도 없다"고 전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카라 충격! 니콜 탈퇴…지영도 미묘'라는 제목과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 스포츠호치는 '니콜, 카라 탈퇴! 내년 2월부터 4명'이라는 제목으로 멤버들의 계약 상황을 설명했고, 내년 5월 이후에는 3인조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카라는 8~9일 요코하마 아레나를 시작으로 7개 지역에서 14회에 걸쳐 두 번째 일본 아레나 투어 '2013 카라시아'를 진행한다. 사실상 5인조 카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팬들은 물론 멤버들의 아쉬움은 클 전망이다.

갑작스럽게 알려진 소식이지만 팀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다. 최근 2년 재계약을 한 박규리·구하라·한승연과 달리 내년 1월 계약이 종료되는 니콜은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속사는 이에 맞춰 5인조 활동 정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초 국내 컴백 앨범 발표 1주일 전에 일본 정규앨범을 발표하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다. 또 최근에는 멤버들의 솔로곡을 모은 '솔로 컬렉션'을 발표했다. 카라는 일본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3인조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내년 4월 계약이 종료되는 강지영의 선택에 따라 4인조 활동도 가능하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가곡의 밤' 콘서트로 무대서는 조영남

눈꺼풀·눈밑 지방제거술도

지난주 하안검 수술(늘어진 눈꺼풀과 눈 밑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가수 조영남(사진)이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조영남 가곡의 밤-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한다.

2008년 데뷔 40주년을 맞아 대중가수 최초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올랐던 조영남은 5년 만에 같은 무대에 서게 됐다. 그는 한국 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들(한계명·김성태·조두남·김희갑)이 작곡한 가곡으로 독창회를 꾸민다.

또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이탈리아 가곡, 멕시코 가곡, 성가 등을 부른다.

소프라노 박정희와 듀엣으로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SBS '스타킹'에 야식 배달 테너로 소개된 김승일과 함께하는 '향수' 등을 모스클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준다.

/유순호기자

GD&탑 DJ 디플로 신곡 '버블 벗' 피처링

빅뱅의 유닛인 GD&탑이 세계적인 DJ 디플로가 이끄는 프로젝트 팀 마이저 레이저의 노래 '버블 벗'에 참여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와 미국 힙합스타 타이가, 가수 미스틱 등이 피처링해 주목받은 원곡에 GD&탑이 한국어 랩을 더했다.

앞서 디플로는 크리스 브라운, 어셔, 비욘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작업했다. 또 GD&탑의 히트곡 '뻑이가요'와 지드래곤의 '쿠데타'를 공동 프로듀싱하는 등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협업해왔다.

/유순호기자

<가수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夜~즐기자" 김규리 화끈한 댄스

BIFF 영화인 뒷이야기

영화의 파도로 넘실대는 부산 해운대의 밤은 낮보다 뜨겁다.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찾은 유명 영화인들이 파도 소리와 달빛을 안주 삼아 벌인 술자리 등 각종 행사로 후끈 달아올라서다. 공식 행사에서는 미처 볼 수 없는 영화인들의 뒷이야기를 모았다.

#강혜정 새벽 1시까지 파티

3일 개막식에서 빠라한 라틴댄스를 선보였던 김규리는 다음날 밤 열린 '배우의 밤' 행사에서 홍석천과 함께 가수 선미의 섹시 댄스를 깜짝 했다. 선미의 파격적인 핫팬츠 의상까지 갖춰 입고 나와 '24시간이 모자라'를 열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연희 유재연 전혜빈 등 배우들과 아이돌 그룹 멕스까지 참석해 김규리의 화끈한 퍼포먼스를 감상했다. 또 강혜정은 예쁨에 없이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소속사 관계자들과 조용히 파티를 즐기다 새벽 1시가 넘어 자리를 떴다.

#생일맞은 유아인 특별한 술자리

영화 '깡철이'로 부산을 찾은 유아인은 미녀 배우 유인나에게 특별한 생일 축하를 받았다.

6일 스물일곱 번째 생일을 맞는 유아인을 위해 소속사 스태프들과 유인나가 3일 밤 해운대 바닷가 앞에 마련된 포장마차에 모여 술자리 파티를 열었다.

한 영화 관계자는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밤이 깊도록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꽃을 피웠다"면서 "작품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스타일리스트를 둬 가까워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류 기획사이사 "나 누군지 알아"

유쾌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일 새벽 많은 한류스타들이 몸담고 있는 대형 기획사 소속 이사 A씨가 만취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내가 OO 이사야! XX들아"라며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A씨의 폭행과 폭언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화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매니저들 얼굴에 먹칠을 했다"면서 "영화제 기간에 낯부끄러운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혀를 끌끌 찼다.

/부산=하은정기자 ha0427@metroseoul.co.kr

'스파이' 제작 윤제균 감독 태국공주에 감사패 받는다

윤제균(사진) 감독이 태국 왕실로부터 한국과 태국의 영화 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는다.

윤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8일 현지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태국의 밤' 행사에서 태국 우본랏따나 라차깐야 공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윤 감독은 설경구·문소리 주연의 '스파이'를 제작하면서 촬영 분량의 30% 이상을 태국 현지에서 찍었다.

한편 '태국의 밤' 행사는 태국 상무부가 양국의 영화 교류와 자국 로케이션 유치를 위해 4년 전부터 영화제 기간 중 개최해오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보르코시건' 시리즈 YES24 리뷰대회 3등 수상작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명예의 조각들'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보르코시건' 시리즈

이번에 나온 '명예의 조각들'은 장대한 대하 드라마와도 같은 '보르코시건' 시리즈의 시작을 열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다. '보르코시건' 시리즈를 색채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들의 원초의 형태가 이 소설에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제마저도 형식의 형태로 깃들어 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주인공이 수많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스토리, 숱한 사건과 고난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인간적 가치와 감소. 이것이 '보르코시건' 시리즈를 더욱 매력있게 만드는 이유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원초적 형태가 이 '명예의 조각들'에 반개하고 있다.

내가 속한 곳은 어디? 명예 vs 권력

그렇다면 여기 '명예의 조각들'에서 반개하고 있는, 부졸드가 강조하는 인간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건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명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대립 축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명예'와 '권력'이다. 소설에서 중요한 갈등의 축을 이루는 인물들은 모두 이 둘의 어딘가에 포진해 있다. 특히 주인공 커플인 코델리아와 아랄이 서 있는 쪽은 '명예'다. 코델리아가 적의 장교인 아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명예'를 중시하는 아랄이 적들에게까지도 인간적 예우를 다하는 모습 때문이었고, 아랄 역시 코델리아에게 비슷한 이유로 연정을 품는다. 여기서 '명예'란 자신의 이름값이나 중시하는 정도의 좁은 의미는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나 대립하고 있는 권력이 보여주는 욕망이나 실리의 추구 같은 모습과는 달리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품격을 지켜간다는 넓은 의미인 것이다. 코델리아와 아랄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목숨마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비록 작은 일을 할지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에 그만 서로가 반해버린 것이다.

'보르코시건' 시리즈를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외부로부터 주입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고 깨닫게 된 나만의 방식으로 싸워가고 성장해 가는 장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명예'야말로 그렇게 되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인 것이다. '명예의 조각들'을 통해 나만의 명예를 찾아가시길.

- 전자책은 www.ridibooks.com(리디북스)에서 제공. 1권 2천원 1부는 무료
-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및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do you plan to do tomorrow? 계획 세우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돈이 충분히 있다면 외국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배로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여행 가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요.
산책하러 가시겠어요?

➔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f I have enough money, I'm going to take a trip abroad.
It's faster to go by plane than by boat.
What's the quickest way to get there?
I hope you have a good time on your trip.
Would you like to go for a walk?

반복 훈련으로 자동 입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속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s 가장 빠른 방법 to get there?
B It's quickest to take the subway.

정답 the quickest way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hope you have a [good / restful] time on your trip.

2 Would you like to go for [a walk / a ride]?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2

동명사

▶ 동명사란 동사 뒤에 -ing를 붙여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며, 문장에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말.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는 동사	mind, enjoy, give up, finish, stop, miss, practice (이미) 끝났거나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 통문장으로 핵심문법 익히기. 다음 문장을 두 번 말해보세요.

1 I enjoy talking with her. 난 그녀와 얘기 나누는 것을 즐겨요.
2 Do you mind helping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3 Let's finish working on this. 이 일은 그만 끝냅시다.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The career-development seminars are open to both part-time ______ full-time employees.
(A) and (B) or
(C) not (D) to

02 Maintaining an emergency account will ensure that you have ______ to cash when you need it.
(A) contact (B) access
(C) entry (D) response

01 경력 개발 세미나는 시간제 직원과 정규직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앞의 both와 짝이 되는 상관접속사인 (A) and를 쓴다.
어휘 career development 경력 개발 open 참여할 수 있는
정답 (A) and

02 비상 계좌를 유지하면 필요할 때 꼭 현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문맥상 필요할 때 현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B) access를 써야 한다.
어휘 maintain 유지하다 emergency 비상 account 계좌 ensure 보장하다 access 접근 entry 입구
정답 (B) acces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Why 의문문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주로 because절과 함께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Why do you use a credit card?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나요?

A I use a credit card because I don't carry cash with me.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because it is convenient to buy things online.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기가 편해서
because I can buy something when I don't have enough money for it. 돈이 모자랄 때 물건을 살 수 있어서

Be동사 의문문

Be동사 의문문에서는 뒤에 나오는 보어에 주의를 기울여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Q Is it necessary to go to an English-speaking country to learn English?

A Yes, it is necessary because it offers opportunities to socialize with native speakers.
No, it is not necessary because there are many study aids available online.

넥센의 패기냐… 두산의 관록이냐

야구 포스트시즌 대망 개막

바시막 가을걷이 왜 수연공은 과연 누가 될까. 2013 한국야구르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8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릴 3위 넥센 히어로즈와 4위 두산 베어스의 준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를 시작으로 열전에 들어간다.

올해는 정규리그 마지막 날에서야 포스트 시즌 대진표가 완성될 만큼 상위권 팀들끼리의 혼선이 대단했다. '가을 잔치'에 그 어느 때보다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삼성 3연속 우승 걸림돌 될까

삼성 라이온스는 사상 첫 정규리그 3연속 우승의 위업을 달성하고 한국시리즈에 선착했으나, 3연속 통합 우승으로 가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아 내심 걱정이다. 두산에는 올 시즌 9승7패로 앞섰으나 LG(7승9패)와 넥센(7승1무8패)에는 박빙의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배영수와 장원삼 등 확실한 선발진과 '끝판왕' 오승환을 앞세우고,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출전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을 더하겠다는 각오다.

▶단단해진 LG 선전할 듯

서울을 연고로 한 세 팀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다.

11년 만에 '가을 야구'의 숙원을 다시 이룬 LG 트윈스는 1990년과 94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그동안 모래알 같던 팀 분위기가 김기태 감독의 큰형님 리더십으로 찰흙처럼 단단해진데다 8년 만에 타격왕을 되찾은 이병규를 비롯해 어진임 봉중근 등 공수의 베테랑들이 큰 경기 경험에 없는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어 선전이 예상된다.

창단 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넥센은 나머지 세 팀과의 정규리그 상대 전적에서 모두 앞선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두산(9승7패)은 물론이고 LG(11승5패) 및 삼성(8승7패1무)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모두 우위에 있다.

여기에 홈런왕 박병호를 선두로 한 팀 타선은 9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25홈런을 뽑아냈다. 공격위주의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점쳐진다.

올해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두산은 관록이 무기다. 홍성흔을 비롯한 불방망이가 힘을 보탠다. 그러나 '원투펀치' 더스틴 니퍼트와 노경은 모두 넥센에 승리 없이 2패만 기록하고 있다는 게 근심거리다.

한편 준플레이오프의 승자는 16일부터 LG와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를 치른다.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팀과 24일부터 대망의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를 벌인다. /조성준기자

2013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대진 일정

준플레이오프 5전3선승제
1차전 10월 8일(화)
2차전 10월 9일(수)
3차전 10월11일(금)
4차전 10월12일(토)
5차전 10월14일(월)

플레이오프 5전3선승제
1차전 10월16일(수)
2차전 10월17일(목)
3차전 10월19일(토)
4차전 10월20일(일)
5차전 10월22일(화)

한국시리즈 7전4선승제
1차전 10월24일(목)
2차전 10월25일(금)
3차전 10월27일(일)
4차전 10월28일(월)
5차전 10월29일(화)
6차전 10월31일(목)
7차전 11월 1일(금)

두산 넥센 LG 삼성

준PO 및 PO 4,5차전과 한국시리즈 3,6,7차전은 필요시 경기 / 연합뉴스

시즌 2승… 장하다! 장하나

러시앤캐시 골프 4타차 우승

장하나(21·KT·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장하나는 6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 골프장(파72·654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1타를 잃었지만 최종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하며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19·하이트진로)가 6언더파로 뒤를 이었다.

장하나는 5월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이후 시즌 2승째를 거뒀고 개인 통산 3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1억2000만원을 챙긴 그는 시즌 상금 5억520만원으로 상금 1위인 김세영(20·미래에셋)을 1억4000만원 차로 따라붙었다. 김세영은 3오버파 219타로 공동 27위에 그쳤다. /유순호기자

▶6일 경기 여주 솔모로CC에서 열린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하나가 기뻐하고 있다. /KLPGA 제공

우즈·쿠차의 미국 1위 유력

타이거 우즈와 맷 쿠차가 한 조를 이룬 미국팀이 5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장(파72·7354야드)에서 열린 제10회 프레지던츠컵(미국과 세계 연합의 남자프로골프 대항전) 대회 셋째 날 포볼 경기에서 세계 연합팀의 애덤 스콧(호주)·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조를 1홀 차로 꺾고 승점 1을 보냈다.

이로써 승점 11.5를 기록한 미국팀은 남은 경기에서 승점 6을 추가하면 우승하게 된다.

김도훈 "내가 매치플레이의 왕"

먼싱웨어 챔피언십 연장승

김도훈(24)이 6일 경기 안성 마에스트로 골프장 레이크·밸리 코스(파72·7206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투어(KGT)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 상금 6억원) 마지막 날 송영한(22·핑)과의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우승 상금 1억5000만원을 챙겼다.

2010년 4월 토마토저축은행 오픈 이후 무승에 머물렀던 김도훈은 3년6개월 만에 개인 통산 2승째를 거뒀다.

또 시즌 상금 3억6317만원으로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1위 류현우(32·4억281만원)와는 4000만원 정도 차이로 추격하기 시작했다.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송영한은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포인트를 쌓는 데 만족했다.

한편 3-4위전에서는 박준원(27·코웰)이 주흥철(32)을 3홀 차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조성준기자

페텔 앞에 아무도 없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3연패… 4년 연속 챔피언 예약

제바스티안 페텔(독일·인피니티 레드불)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3년 연속 정상을 질주했다.

페텔은 6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결선 레이스에서 5.615㎞의 서킷 55바퀴(총길이 308.63㎞)를 1시간 43분13초701에 달려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벨기에 대회부터 이탈리아와 싱가포르, 한국 그랑프리까지 4연승을 내달린 페텔은 4년 연속 F1 챔피언 등극의 가능성을 높였다. 63년의 F1 역사에서 4년 연속 챔피언을 차지한 드라이버는 지금까지 미하엘 슈마허(독일)와 후안 마누엘 판지오(아르헨티나) 단 두 명뿐이다. /조성준기자

페텔이 우승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 올라 샴페인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신현종 양궁감독 경기중 실신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신현종 한국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 감독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신 감독은 지난 4일 터키 안탈리아 파필론 스포츠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여자 단체 8강전 프랑스와의 경기를 지휘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신 감독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현지 의료진은 뇌출혈로 보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현대자동차 부회장)은 현대차 터키 법인장을 현지로 급파해 신 감독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코치진은 신 감독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 등 열악한 대회 환경과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이날 프랑스와 비긴 뒤 화살 세 발로 승부를 결정하는 연장전에서 져 7위에 그쳤다.

한편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같은 날 벌어진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전에서 벨라루스를 212-206으로 꺾고 우승했다. /조성준기자

프로축구 전적 6일

전남	2	1	제주
인천	0	0	서울